



미 증시, 물가지표, 실적에 주목하며 혼조 마감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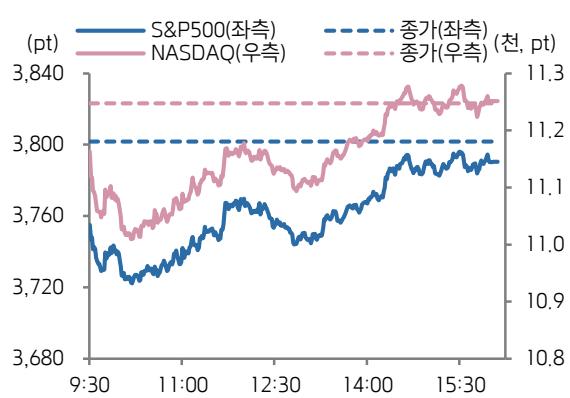
14일(목) 미국 증시는 전일 소비자물가지수 결과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예상치 상회, 미국 주요 은행주들의 실적 부진 등으로 하락했으나,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한 연준위원들의 발언, TSMC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 (다우 -0.46%, S&P500 -0.3%, 나스닥 +0.03%, 러셀 2000 -1.07%).

미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1.3%(예상치 10.7%, 전월치 10.9%) 증가를 기록하며 예상치 상회, 전월대비로는 1.1%(예상치 0.8%, 전월치 0.9%) 상승.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8.2%(예상치 8.2%, 전월치 8.5%), 전월대비 0.4%(예상치 0.5%, 전월치 0.6%) 증가. 세부항목 중 상품 도매 물가 2.4% MoM, 서비스 도매 물가 0.4% MoM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가 10% 이상 상승하며 전체 지수의 상승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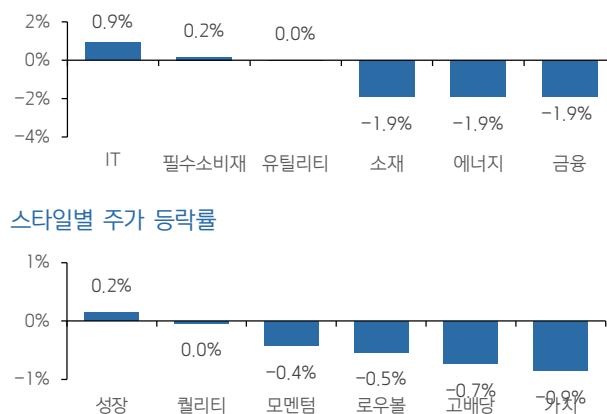
매파적 성향의 월례 연준 이사는 7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만, 향후 발표되는 소매판매나 주택 관련 경제지표에 따라 견해를 바꿀 수 있다고 언급.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중립금리를 2.5% 정도로 보고 있으며, 75bp 인상이 적절하다’고 언급.

업종별로 IT(+0.9%), 필수소비재(+0.2%), 유틸리티(0%)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금융(-1.9%), 에너지(-1.9%), 소재(-1.9%)의 하락폭이 가장 컸음. 이날 실적을 발표한 JP 모건, 모건스탠리가 매출, EPS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하며 은행주 약세를 이끌. 금리 인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증가했으며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부정적으로 작용. 한편 TSMC는 반도체 업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하며 애플(+2.05%), 엔비디어(+1.37%), 마이크론(+0.83%) 등 주요 기술주가 동반 강세, 나스닥 상승을 주도.

S&P500 & NASDAQ 일종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 | | | |
|-----------------|-----------|--------|-----------|----------|--------|
| 주식시장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3,790.38 | -0.3% | USD/KRW | 1,311.95 | +0.39% |
| NASDAQ | 11,251.19 | +0.03% | 달러 지수 | 108.64 | +0.64% |
| 다우 | 30,630.17 | -0.46% | EUR/USD | 1.00 | +0.01% |
| VIX | 26.40 | -1.57% | USD/CNH | 6.77 | +0.07% |
| 러셀 2000 | 1,707.51 | -1.07% | USD/JPY | 138.98 | +0.01% |
| 필라. 반도체 | 2,626.92 | +1.92%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2,965.39 | -0.27% | 국고채 3년 | 3.249 | +3.9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년 | 3.271 | -2.4bp |
| Eurostoxx50 | 3,396.61 | -1.66% | 미국 국채 2년 | 3.132 | -2.3bp |
| MSCI 전세계 지수 | 589.09 | -0.89% | 미국 국채 10년 | 2.960 | +2.6bp |
| MSCI DM 지수 | 2,544.68 | -0.37%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970.46 | +0.33% | WTI | 95.78 | -0.54% |
| MSCI 한국 ETF | 55.96 | -1.82% | 금 | 1705.8 | -1.71%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7.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경기 우려 확산 여부
2. 장중 발표될 중국 6 월 실물지표 및 2 분기 경제성장률
3. 전일 IT 업종 강세로 인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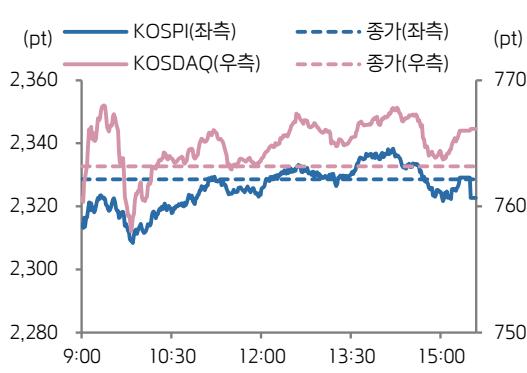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6 월 생산자물가지수와 전일 소비자물가지수 쇼크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자물가의 상승분은 향후 소비자 물가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물가 피크아웃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 시장은 혼조세를 보임. 다만 이후 연준 인사들이 75bp 인상 가능성은 언급한 영향으로 Fed Watch 100bp 인상 가능성은 80%대에서 40%대까지 빠르게 축소, 미국채 2 년물 금리 하락하며 금리 부담이 줄어든 IT 업종이 강세. 추가적으로 독일, 프랑스 국채 10 년물 금리 급등, 유로화 가치 하락 등 유럽발 침체, 물가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므로 다음주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폭이 또다시 증시의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

장중에는 6 월 봉쇄조치 해제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6 월 소매판매(예상 0.3%YoY, 전월 -6.7%), 산업생산(예상 4.0%, 전월 -0.7%), 고정자산 투자(예상 6.0% YTD, 전월 6.2% YTD) 등 실물 경제지표 결과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다만 함께 발표될 2 분기 경제성장률은 QoQ -2.0%(1 분기 1.3%), YoY 1.2%(1 분기 4.8%) 증가로 컨센서스 형성. 지난 4~5 월 상하이, 베이징 등 핵심 대도시의 봉쇄 영향으로 경기 부양책 효과가 반영된 1 분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만약 이를 하회할 경우 중국 정부가 목표한 22 년 연간 성장률 5.5%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면 아시아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약화될 가능성 존재. 다만 6 월부터는 부양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는 중립적인 이슈에 국한될 것이라고 판단.

전일 물가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는 금일 역시 나스닥 상승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TSMC는 재고 및 증설, 단기 전망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지만, 2 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점은 그동안 실적 우려를 키웠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